



올해는 UN이 정한 사막화 방지의 해

제2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을 가다** (상)



유목민 베두인

낙타 타고 양·염소 목축하며 유랑 생활
절반은 정착... 마약·테러 '범죄'에 노출



베두인족의 거주 천막

일 년 내내 오는 비의 양이 우리나라에 한 번 쏟아지는 폭우의 양보다 적은 땅, 기온이 높고 건조해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불모의 땅. 네게브사막을 가로지르며 '이런 곳에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사막의 단조로움에 인간의 숨결을 불어넣는 마을이 나타난다. 정착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막의 유목민들 '베두인' 마을이다. 아랍어로는 '사막의 거주자'라는 뜻. 아랍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정착생활을 하는 아

랍인들을 '펠라힌'(Fellahin), 유목생활을 하는 아랍인들을 '베두인'이라고 부른다. 일부다체제의 남성 중심 사회를 고수하고 있다. 현지 동행인은 "아마 저들은 안락한 집과 음식을 제공해 줘도, 오히려 문명의 생활을 불편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두인들은 '사막의 벤츠'라 불리는 낙타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양·염소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베두인들의 생활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이스라엘 정부가 네게브 사막 개발계획의 일부로 베두인 정착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 이때부터 절반 가량의 베두인이 정착을 시작했으며, 농동을 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마약·테러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도 했다.

/viola@kwangju.co.kr

'죽음'의 땅에서 '젓과 꿀' 흐르는 땅으로

'생명'과 '삶'의 화려함을 가진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다.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 잠을 잔다.' 1867년, 미국의 문학 마크 트웨인은 당시 팔레스타인 땅이었던 '네게브 사막'을 여행한 뒤 그 느낌을 자신의 책 '철부지의 해외여행기'(The innocents Abroad)에 이렇게 썼다. 139년이 지난 지금, 1년 강우량이 80mm를 채 넘지 않는 네게브사막은 아직도 '고독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국제공항'이 있는 '텔 아비브'에서 남쪽으로 한껏 가열된 도로를 따라 3시간 여를 달려 도달한다. 적막한 길에서 함께 달려줄 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어느 도로를 가나 산(山)이 줄지어 서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다만 초록색 풀과 나무로 뒤덮인 우리 산과 달리, 생명체를 좀처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네게브(Negev)'는 히브리어로 '건조하다'라는 뜻의 동사 어근 'n-g-b'에서 생겨났다.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남쪽에 자리한 때문에 '남쪽'(South)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 '남쪽'의 의미는 이스라엘 인들에게 무척 각별하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 구리온(1886~1973)은 "이

이스라엘 전체 면적의 절반 염분 많고 건조한 땅 개발 나무 심고 농사까지 지어 사막화 방지의 세계적 '모델'

이스라엘의 존재는 '남방'(네게브 사막)에 달려있다.(The state of Israel, to exist, must go South)"라는 말을 남겼다. 땅속에 소금기가 많은데다 극심하게 건조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 그러나 벤 구리온과 초기 개척자들은 메마른 땅에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었다. 급기야 벤 구리온은 1970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네게브 사막의 중심 '스데 보켈' 지역에 들어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네게브 개발'을 몸으로 실천했다. 네게브 사막은 전체 면적이 약 1만3천km로 이스라엘 전체 면적의 50%에 해당한다. 북쪽의 면적이 남쪽보다 넓은, 역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가장 남쪽에는 '에일랏' 지역이 홍해를 끼고 세계적 휴양지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다. 북쪽 경계는 브엘세바를 지나 사해 남단에 이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선 필자.

른다. 생태학적으로는 크게 다섯 지역으로 나뉜다. 북 네게브는 '지중해 구역'이라 불리는데 연간 300mm의 비가 내려 비교적 토질이 비옥하다. 반면 서 네게브는 부분적으로 모래재질의 토양이 섞여있다. 연간 250mm의 비가 내리는 이 지역에는 27m가 넘는 모래언덕이 형성된 구역도 있다. 남쪽으로 내려올 수록 강우량은 크게 줄어든다. 네게브 지역의 중심에는 1년간 모두 합쳐 200mm 정도의 비가 오지만 이곳은 비가 스며들지 않는 토양이다. 극소수의 풀이 침투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물들은 모두 흘러버린다. 그와 '아라바(Arava) 계곡'일대는 남쪽 에일랏부터 북쪽 사해 끝까지 180km에 이르며 요르단 테두리를 끼고 있다. 400m~500m 높이의 고원지대 '라마트 헤네gev(Ramat Hanegev)' 지역은 여름과 겨울 모두, 높은 온도에 시달린다. 이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고작 100mm. 이곳의 흙에는 소금기가 섞여있다. 이런 악조건 때문에 네게브는 넓게 개발되지 못하고,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 목숨 건 싸움을 벌이면서도, 사막화 방지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꾸준한 수자원 연구와 토질 보호 프로그램 개발을 거듭한 결과, 이제 이스라엘의 환경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viola@kwangju.co.kr

이스라엘 스테 보켈 = 서민정 기자



성경의 출애굽기(3장 17절)는 가나안을 가리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 메마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 어떻게 젓과 꿀이 흐를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사막화 방지에 노력했고, 이를 실현해가고 있다.

TOUCH 광주총판. Office chairs and desks advertisement.

BRAVIA. Samsung TV advertisement with product images and contact information.